

한국어와 나

김 근 순

뉴욕한국어 교육원 부원장

1. 뉴욕한국어교육원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첫날 7 명의 학생들이 둘러 앉아 인사를 나누며 자기 소개를 한다. 이 교육원은 뉴욕 맨해튼 32 가 Korea Town 에 있다.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어서 아래의 대화는 물론 영어로 오고 간 말이다. “제임스 씨는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키가 아주 크고 머리가 노란 30 대의 백인 남성이 “저는 미국사람인데 제 약혼녀가 한국사람이에요. 한 달 후에 결혼식을 해요. 약혼녀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시는데 영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배워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회사원이라고 한다. 또 다른 여학생에게 “아끼 씨는 왜 한국말을 배워요?” 라고 하니, 자기는 일본인 작가이며 한국친구도 많고 한국 드라마를 아주 좋아한다.

“이단양 씨는 한국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중국사람이고 경제학 교수입니다. 한국 TV 드라마가 정말 재미있어요. 자막을 보고 이해하는 게 불편해서 직접 듣고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러 왔어요.” 피터 씨는 “아버지는 미국분이고 어머니가 한국분이에요. 어릴 때 조금 배웠지만 지금은 다 잊어 버렸어요. 잘 배우고 싶어요.” Mr. 고는? “제 이름은 Jay 예요. 한국 이름은 고 재일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영화 관계 일을 해요. 바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리아 씨는요? “저는 최마리아입니다. 한국사람인데, 한국말을 잘못해서 부끄러워요.”

한국인 2명, 중국인 2명, 미국인 1명, 일본인 1명, 혼혈인 1명 모두 7명이다. 우리 반에는 현재 남미나 아프리카 계통 사람은 없다. “저는 김근순입니다.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쳐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복습과 예습을 꼭 하고 숙제도 꼭 하세요!” 다짐을 하고 수업을 시작했다. 첫 시간부터 “하하, 호호” 하면서 즐거운 수업을 한다. James는 자기가 다시 유치원생이 된 기분이라 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를 듣고 따라하려니 어릴 적에 처음으로 말을 배우던 기분이 든 것 같다. 1시간 수업을 끝내고 고급반 교실에 들어갔다. 한국인 2세 6명과 중국인 1명이 기다리고 있다. 이 학생들은 2-3년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이는데 지금은 중매결혼, 재혼, 이혼 등 어려운 말을 배우고 있다. 이 반의 구성은 의대 교수 1명, 의대 재학생 2명, 학원 강사 1명, 일반회사 직원 3명이다. 남자 4, 여자 3명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사이이다. 고급반이니까 당연히 모든 건 한국어로만 설명하고 피치 못할 경우에만 영어로 한다.

내가 지금 소속 되어있는 뉴욕한국어교육원은 1995년 3월 6일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수 천 명이 거쳐 갔다. 19년 동안 수많은 나라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다. 육대주 사람 모두가 여기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 그 중에 한국인이 제일 많았고 요즘은 비한국계 사람이 70-80%쯤 되고 한국인 수가 적어졌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영국, 불란서,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쉬,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애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과테말라, 브라질, 에콰도르, 알젠티, 독일, 프랑스, 터키, 희랍, 예집트, 몽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심지어 머리에 회잡을 쓴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여학생까지 수 없이 많은 나라 사람들을 만났다. 직업도 다양하다. 현직 미국인 판사를 비롯해서 변호사, 의사, 간호사, 계리사, 교수, 건축가, 사무직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연예인, 가정 주부, 보험인, 대학생 등 다양하기 그지 없다. 연령은 고등학생부터 70세가 된 은퇴한 교사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은 아주 재미있다.

2. 터키 유학

나는 연세대학교 재학시절 4학년 2학기부터 연세대학교 부설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졸업을 하고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시청각교육학을 공부하려던 것이 갑자기 방향을 틀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어학당 학감으로 계시던 박창해 교수께서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보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는 바람에 얼떨결에 생각도 해 보지 않았던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학생들은 모두 외국인 성인이었는데 수업시간은 아주 재미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부터 교제하던 사람이 터키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나도 미국 유학 계획을 접고 또 한 번 방향을 돌려 유학시험을 치르고 터키 정부 장학생으로 터키에 가게 되었다. 터키에 가서 박사과정을 밟고 학위를 받게 되었는데 터키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므로 어순이 한국어와 같아서 말을 빨리 배울 수 있었다.

터키에는 동양인처럼 생긴 Tatar 족이 있는데 내가 터키말을 잘 하니 Tatar 족이냐고 묻는 사람도 여럿이 있었다. 터키 군인들이 한국 전쟁 때 참전하여 한국을 많이 도와주었고 한국에서 전사한 군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은 한국을 형제나라라고 말하며 한국 사람들을 아주 좋아한다. 터키 사람들은 정이 많고 정의감이 강하며 굉장히 친절하다. 기원후 1299년부터 1922년까지 오스만제국을 건설하여 아시아 서부, 유럽의 일부, 북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을 점령하였는데 국민성이 대범하고 마음 씀씀이나 통이 큰편이다. 현재 터키의 면적도 남한의 8 배에 달한다. 남편(이선근 박사)은 나보다 2년 먼저 유학을 갔고 2년 먼저 학위를 받았다. 그는 내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한국대사관에서 일을 하면서 나를 기다렸다.

3. 뉴욕에 정착

터키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가는 길에 내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할 겸, 어머님과 가족도 만날 겸 뉴욕에 잠시 들렀다. 그런데 또 한 번 한국으로 귀국하는 길을 접어야 했다. 남편이 한국 외국어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기로 학교측과 결정을 했는데 남편의 대학원 지도교수이셨던 박창해 교수님을 비롯한 어른들의 만류가 만만치 않았다. 서울의 가족들은 오지 말라고 하고 이곳 가족들은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었다. 그때가 1975년 여름이었다. 우리는 뉴욕에서 몇 년 더 있다가 귀국하기로 결정하고 동생집에서 두 달 있다가 아파트를 구해 나갔다. 무슨 이런 운명이 다 있나! Columbia 대학교, Harvard 대학교 등 몇 군데에 장학금을 신청해 보았으나 연구장학금 받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다. 두 달 후에 할 수 없이 Columbia 대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아는 분의 가게에서 알바이트를 하면서 뉴욕생활을 시작하였다.

4. 부르클린 한인교회 한국어학교

그 당시에 나가던 부르클린 한인교회에는 박창해 교수를 비롯한 연대 동문들이 몇 분 계셨는데 주일 예배 후에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역사,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자는 의견이 나와서 주말한국학교를 만들고 남편은 교장으로 나와 다른 여선생 두 분은 일반교사로 한국학교를 시작하였다. 한국말을 못하는 우리 2 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때가 1978년이었다. 역사 문화는 영어로 가르치고 한국어는 현대언어 교수법을 사용하여 열심히 가르쳤다. 학생들은 대부분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었다.

학기말에 학습 발표회를 하는데 연극을 준비해서 발표한 반이 있었다. 중등반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연극 대사 중에 “아이구 내 팔자야”하는 대목이 있었다. 그 남학생은 팔짜라고 발음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아이구 내 팔자야”하니 관중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그후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더욱 분발하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잘

도와주었다.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모든 학생들이 11학년이 될 때까지 한국어를 공부하고 졸업을 하였다. 오랫동안 한국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보니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는 학생들도 부모들도 너무 기뻐서 만세를 불렀다. 그동안 힘도 많이 들었고 졸업을 하기에 기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교회가 롱아일랜드로 옮기면서 학교이름도 자연히 롱아일랜드 한인교회 한국어학교로 바뀌었다. 그후에 학교만 독립하여 이제는 정부의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된 롱아일랜드 한국학교(주말:토요한국학교)로 교육에 열중하고 있다.

5. 뉴욕 브로드웨이 한국학교와 나

1983년 8월 어느날 뉴욕판 한국신문을 보다가 큰 광고를 보게 되었다. 뉴욕 한인경제인협회에서 한국학교를 창설하여 학생모집을 하는 광고였다. 학교 이름은 ‘뉴욕 브로드웨이 한국학교’이다. 나는 남편에게 “여보, 뉴욕한인경제인협회’는 돈만 벌지 않고 교포사회를 위해 좋은 일도 하네요. 한국 학교를 세웠대요.”하며 얘기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는 대부분의 회원이 맨해튼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도매상을 하는 분들과 무역을 하는 분들로 구성된 단체였다. 그때에는 한인들의 단체가 몇 개 안 되었다. 아무튼 토요일에 한국학교를 개설하는데 수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을 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많지 않은 주말 한국학교들이 길어야 4시간 수업을 하고 대부분이 2, 3시간 가르쳤다. “브로드웨이 한국학교는 수업을 오래도 하네.” 하면서 지나갔다.

그런데 이듬해 1984년 5월초, 뉴욕한인 경제인협회 6대 회장이셨던 김동빈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뉴욕 브로드웨이 한국학교 교장을 맡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다음날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말씀인즉, 뉴욕 브로드웨이 한국학교는 서울에 있는 교육 재단인 삼산 학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6월 말부터 3주간 모국방문 연수를

계획하고 이를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데 초대교장이신 여금현 선생님(후에 목사가 되셨다)께서는 형편상 뉴욕을 떠날 수 없는 관계로 교장직을 사임한다는 것이다.

여금현 교장 선생님이 이미 신청 받아 놓은 46 명을 인솔하여 한국에 갔다 와야 하고 9 월 학기에는 다시 학생 모집을 하여 주말 한국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다. 나는 용감한 결단을 내려 맡기로 했다. 나는 여금현 교장 선생님께 금방 그만 두시지 말고 한 학기를 완전히 끝마칠 때까지 계시기를 간청해서 그렇게하기로 하고 나는 같은 주 토요일부터 무보수로 토요일마다 등교하여 한국에 갈 학생들의 명단을 놓고 이름과 얼굴을 익히고 orientation 을 해 나아갔다. 한국에 갈 학생들은 7 살(2 학년)부터 17 살(11 학년)까지인데 10 명 정도는 본교 재학생이 아니었다. 여교사(이영자 선생) 한 분과 김동빈 회장의 큰 아드님, 김한성 군이 도와주기로 되어 있었다. 무더운 여름날이 시작되었지만 나는 할 일이 많았다. 여행 때 쓸 비상약을 비롯하여 한국에 가서 가르칠 교재까지 준비하는 데 일일이 내 손이 가야 했다.

우리는 드디어 밤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탔다. 학생들은 쿵쿵 잠을 잘들 잤지만 선생님들은 스튜어디스 일까지 해야 했다.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 목 말라요, 선생님, 배가 아파요”라고 말을 해 온다. 책임을 맡았으니 해결해 나아가야지 별도리가 없지 않은가. 태평양을 반쯤 지나 갈 무렵 입국 신청서를 써야 한다고 하면서 종이를 준다. 7, 8 세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는가. 나와 이영자 선생님이 서류 작성까지 하다 보니 밤을 꼬박 새우다 싶어 했다. 한국에 도착하니 이미 지쳤는데 서울 쌍문동에 있는 정의여자중학교로 가서 자매 결연식을 할 계획이란다.

공항에서 나와 보니 큰 학교 버스에 “환영, 뉴욕 브로드웨이 한국학교”라고 쓴 커다란 플래카드를 붙인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공항에서 학교까지가 꽤 멀었다. 자매결연을 맺을 한신국민학교, 정의여자 중고등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여행복 차림으로 강당에서 자매 결연식, 선물교환 등을 했다. 학생들은 모두 같은 나이 또래의 학생집에서 2 주간 민박을 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1 주는 부산에 가서 호텔에 투숙하면서 고적 답사 등 여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자매결연식을 마친 후, 미국에서 간 학생들은 모두 서울에 있는 2 주 동안은 민박할 학생들 집으로 떠났다. 오전에는 민박집 주인 학생과 같이 등교하여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서울 근교에 있는 고궁, 민속촌, 박물관 등을 견학하는 계획이었다. 오전에는 내가 자유시간을 갖나 했더니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서 그 학생들을 따로 모아 가르쳐야 했다.

아무튼 뉴욕브로드웨이 한국학교 교장의 신고식을 참으로 호되게 치른 셈이었다. 그때만 해도 젊어서 가능했던 것 같다. 꼭 30 년 전 일이었다. 7, 8 세의 어린 학생들은 대부분 누나 또는 언니가 같이 왔기 때문에 약간 도움은 되었는데 사춘기 남녀 학생들을 당일 여행이 아닌 긴 여행을 인솔한다는 것은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고 힘든 일이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여행을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은 나를 바짝 긴장하게 하였다. 이 모국 방문 연수는 내가 부임하기 전에 경협관계자들과 한국에 있는 삼산학원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여 학생들을 뽑아 놓은 것인데 실제로 이 일을 맡고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

미국에서 간 학생들은 남학생들이 절반인데 한국의 학교는 초등학교(한신국민학교)는 남녀 공학이지만 중고등학교는 정의여자 중고등학교 즉 여자들만 공부하는 학교였다.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한국에 가서 목을(민박할) 집들도 다 정해 놓은 상태였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1 학년(미국 학교 10 학년) 남학생은 정의여고 1 학년 여학생 집인데 오빠나 남동생이 있는 집으로 정해 놓았다. 한창 사춘기 학생들인데 말이다. 한번은 시기심이 많은 한국의 여고생이 같은 반 민박을 하는 학생 집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민박집 딸이 지금 납치되었다고 했다. 그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그 부모는 학교 교장과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고 대소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납치되었다는 딸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니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닌가. 십대 여학생의 질투심, 시기심이 교장 선생님 이하 여러 명이 곤욕을 치르게 한 사건이었다. 왜 그 친구 집에서만 미국에서 온 영어도 잘하고 잘 생긴 남자 학생이 2 주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투심에서 거짓말 신고를 한 것이었다. 여하튼 모든 일은 아무 문제없이 잘 끝나기는 했지만 내가 십년 감수한 사건이었다.

나의 뉴욕 브로드웨이 한국학교 교장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뉴욕 브로드웨이 한국 학교 이사회와 학부모님들의 큰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제 6 대 회장이셨던 김동빈 회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그분은 한참 후에 뉴욕 평통회장을 지낸 바 있다. 서울 생활을 마치고 우리는 모두 부산 해운대 호텔로 옮겼다. 거기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단체 생활을 했다. 대형 관광버스로 경주 고적지를 비롯한 여러 곳에 학생들을 데리고 다녔다. 몇몇의 학부모님들도 동참했던 기억이 난다.

호텔에서는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한 방에 4 명씩 배정이 되어 있었다. 나는 호텔하면 모두 침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침대를 싫어하는 한국사람들을 위해서 온돌방도 있단다. 우리 학생들은 모두 온돌방을 이용했다. 저녁 식사후 잠시 모여서 다음날 계획을 설명한 후 각자 방으로 흩어져서 자유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서로 모여 카드 게임을 하거나 즐겁게 놀았다. 취침 전에는 명단을 갖고 방마다 점검을 했다. 각자가 자기 방에 있어야 하는 시간인데 남녀 학생들이 아직 자기 방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철저히 점검한 후 학생들이 잠이 든 것을 보고서야 안심을 하게 되었다.

내가 할 일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해야 할 일거리를 갖고 복도에 앉아서 보초를 서면서 12 시, 1 시까지 일한 생각이 난다. 1 년 전쯤 중고등학교 모국방문 여행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풍문으로 들었던 터라 신경이 많이 쓰여졌다. 아무튼 3 주 과정을 무사히 끝마치고 모든 학생들을 학부모님 또는 친척들한테 안전하게 인계한 후 긴장이 풀리면서 뉘퐁 몸살을 앓은 것이 지금도 문득 문득 생각이 나곤한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잠시 쉰 후, 가을학기 개학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1980 년대에는 미국에 아직 한국학교가 많지 않았다. 나는 1978 년부터 교회 한국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지만 교포사회에는 “왜 미국까지 와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느냐?”는 부모들이 많았고 학계의 모교수는 한국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 학교교육에 방해가 되어 점수가 나빠진다고까지 말한 분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이 정말 아파진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인은 한국인의 뿌리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하고 한국 역사와 문화, 예절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가르쳤다.

뉴욕 브로드웨이 한국학교는 봄, 가을학기로 나누어 한 학기에 14 주씩 가르쳤다. 이미 말한 것처럼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원들이 우선 자기들 자녀교육을 염두에 두고 학교를 세웠다. 협회원은 모두 도매상이나 무역업자들이었고 사무실 또는 가게는 모두 맨해튼, 그것도 브로드웨이 27가-32가 사이에 있었다. 그래서 학교 건물도 9 애브뉴, 26-27 스트리트 사이에 있는 미국 공립초등학교인 PS32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매상은 주중에는 저녁때 문을 닫지만 토요일에는 새벽부터 오후 3시까지만 영업을 하는 관계로 한국학교도 토요일 9시부터 3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일거양득이 아닌가. 아침에 어린 자녀들을 한국학교에 맡기니 부모들은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자녀들에게는 한국어와 한국 음악, 무용, 태권도, 한국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것이다.

가을학기는 8월에 라디오 방송과 일간신문마다 크게 개학광고를 내어 학생들을 모집한다. 그 당시만 해도 맨해튼은 ‘우범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던 터라 학생 중 맨해튼 거주 학생은 전교생의 10%에 불과했다. 모두 먼 곳에서 통학을 했다. 우선 나는 모자라는 교사 충원을 위해 교사 모집 광고를 내서 교사를 충원시켰다. 내가 근무할 당시 뉴욕 브로드웨이 한국학교는 교사진이 우수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뉴욕한인경제인협회는 큰 단체 중의 하나였지만 모두 이민 초기라 초기에는 한국학교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학생들의 등록금도 아주 적었다. 그런데 나는 잘 가르쳐야 한다는 욕심으로 학생들을 수준별로 세분하여 한국어 교육을 시켰다. 자연히 선생님들에게도

사례비는 거마비 정도밖에 안 되니 돈을 벌고 싶으면 다른 직장을 찾으라고 하고 교육에 사명감을 갖고 봉사, 헌신을 하라고 주문했다. 모두 뜻있는 분들이라 기꺼이 승락하고 한 목표를 향해 달렸다. 학생들이 한국말을 잘못하므로 한국어 선생님들에게 현대 회화교수법을 가르치고 남편(이선근 박사)과 함께 한국어 회화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말하기 중심으로 가르쳤다.

한국어 회화 중심 교육을 한 이유는 전국 한국학교 학술대회에 참석했을 때 미국 중부에서 온 한 교사가 “학생들이 한국학교에 10 년이나 다녔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듣고 깨달은 점이 있었다. 한국학교 학생들은 한국어가 외국어인데 교사들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수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뉴욕브로드웨이 한국학교 선생님들에게 현대 언어교수법을 철저히 연수시켰다. 그 덕분에 전국 한국학교 학술대회 때마다 뉴욕브로드웨이 한국학교 선생님들은 강사로 초빙되어 시범교육을 여러 번 하였다.

뉴욕브로드웨이 한국학교 학생들은 토요일 아침에 체육관에 모여 반별로 담임교사의 인솔하에 자기 교실로 들어갔다. 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시간을 6 번, 점심시간을 45 분으로 정하여 시간표를 짰다. 학생들은 누구든지 한국어 회화, 1 시간, 독본 2 시간, 말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한국어 회화 2 시간, 독본 1 시간씩 가르치고 모든 학생들이 음악을 배우도록 했다. 한국어를 제외한 교사들은 전문가들이었고 특히 한국 역사와 문화는 영어로 강의하도록 하였다. 모든 교사는 학기 시작 전에 강의 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2 주에 한 번씩 교안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였다. 만약 갑자기 결근을 해도 다른 선생님이 그 교안대로 잘 가르칠 수 있게 했다. 한국어는 매주 숙제를 학생들에게 주었고 한 부는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뉴욕브로드웨이 한국학교는 수업에 충실하고 잘 가르치는 학교로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고 싶어했다.

초기에 80 여 명의 학생들은 모두 한국어 3 시간, 음악 1 시간, 저학년은 무용이나 태권도 1 시간, 5 학년 이상 고학년 학생들은 모두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도록 하고 나머지 1 시간은 선택과목으로 붓글씨(서예), 미술 등을 가르쳤다. 점심은 처음에 모든 학생들이 식당에 모여 피자를 주문해서 먹었지만 어떤 학생들이 피자를 먹지 않고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고 각자 부모들이 준비해 주도록 했다. 점심시간은 모두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

뉴욕 브로드웨이 한국학교는 매학기 전교생이 하는 행사가 정해져 있었다. 가을학기에는 코리언 퍼레이드 참가, 공개 수업, 동화구연대회, 학습 발표회가 있고, 봄학기에는 어린이 예술제 참가, 공개 수업, 운동회 그리고 매학기 말에 종강식과 더불어 각반 학습발표회를 실시 했다. 또한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쓰신 글과 그림을 모아 책자를 만들어 누구나 한 부씩 가졌고 학기 말에는 꼭 학습통지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와 특활 담당교사들이 학부모들한테 하고 싶은 말과 평가서를 써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학기 중에도 학부모들한테 필요할 때마다 통신문을 보내어 협조를 구했다.



재미한국학교 동북부지역 협의회 주최 어린이 예술제에는 매년 틀림없이 참석하였는데 어떤 때는 고전무용 어떤 때는 연극, 어느 해에는 합창 등 아주 다양하게 준비하여 발표를 하였다. 어느 해인가 한국 무용을 준비해서 참가했는데 무용복을 일률적으로 맞추어 입혀서 나갔더니

어떤 다른 학교 학부모가 “저 학교는 무용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나?”하는 말을 듣기도 했다. 옷도 일품이었지만 고전 무용도 아주 잘 하는 것을 보고 한 얘기였다.



지금 뉴욕의 모대학교 교수이신 조동호 교수님이 연출하신 심청전 연극은 아주 멋있었다. 심봉사는 하얀 도포(누덕 누덕 기운)에 갓까지 쓰고 했으니까. 배경에 나오는 합창도 조동호 교수가 작사, 작곡을 직접하고 학생들은 남녀 모두 한복을 입고 나갔다. 어린이 예술제는 퀸즈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대형버스를 대절하여 학생들을 데리고 나갔다. 그런 걸 본 다른 학교 선생님이 심청전은 우리만 보기 아깝다고 하면서 다른 한국학교에도 가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도 있었다. 어느 해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요청으로 무용반 학생 전원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서 분장을 하고 한복을 입고 미국인들 앞에서 두세 시간 공연을 한 적도 있다. 이 모두는 담당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협조하여 이루어 낸 작품이었다.

한국어 수업은 아주 철저히 준비하여 교육시켰다. 나는 토요일에만 수업하는 학교의 교장이었지만 주중에도 한국어 회화교재와 교안 작성으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정열적으로 헌신했다고 생각한다. 목적이 뚜렷했으므로 오직 한 방향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일했다. 토요일한국학교 교장이었지만 한 반을 맡아 담임도 했고 한국어회화

교재는 매주 5,6 반 것을 준비해서 교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우리학교의 학생들은 한국인의 후예로서 한국말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역사, 노래 등을 잘 이해하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오로지 사명감, 책임감을 갖고 부끄러움이나 아쉬움이 없도록 열성적으로 일했다.

우리는 어린이들만 생각하지 않았다. 학부모님들도 항상 시간을 내어 미국사회를 배우도록 교수, 변호사, 보험인 등을 초빙하여 다양한 주제로 학부모반을 운영해 나갔다. 때로는 미국 교육제도나 법에 관한 특강을 하기도 하고 꽃꽂이반, 붓글씨반, 합창반도 운영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교사연수회를 가졌다. 모든 선생님들은 1년에 한 번씩 NAKS (재미한인학교 협의회) 주최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또 전국 교사연수회는 타주에서 개최하므로 학교에서 후원금을 대면서 3박 4일의 여행을 하면서 새 교수법을 배우기도 하고 본교 교사들이 가르치기도 하면서 교사들의 우정도 돈독히 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교사는 입을 트게 해 줄 수 있는 교수법을 터득하여 실천해야 했고 학생들에게서 직접 효과를 얻게 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 목적이 첫째 의사소통이다. 한국말로 묻고 대답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 편지를 비롯하여 남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2, 3 세들이 한인의 후예로서 당당하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간에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한국적인 사고방식, 한국인의 예의 범절, 문화 등 골고루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열성을 다해 맡은 일을 잘해야 했다.

뉴욕 브로드웨이 한국학교(현 맨해튼한국학교)는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부설 학교이지만 초창기에는 경제면에서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 우리는 학부모회와 힘을 합쳐서 모금파티, 기금모금 바자회 등을 해서 모자라는 돈을 충당시켰다. 학생수가 많지 않고 등록금도 적은 편인데

학생들 수준에 맞게 교육을 하느라 한 반에 20 명씩 배치해서 교육하라는 경험 이사회의 지시를 듣지 않고 수준별로 한 반에 7-8 명 씩 배치해서 수업을 했다. 나는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운영해 나갔다. 한번은 다민족 가정의 자녀가 입학했는데 고학년일 경우 2-3 명을 한 반에 앉혀 놓고 한국말을 가르친 때도 있었다. 한국말을 못한다고 7-8 학년 학생을 5-6 세의 어린아이들과 같이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한국 역사, 음악, 태권도는 합반을 해서 수업을 했다.

1990 년에는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5 학년 이상 대학생까지 학생 29 명을 모집해 집중 한국어 교육을 1 개월 동안 매일(일주일에 5 일, 하루에 4 시간씩 수업) 실시한 적이 있다. 그때는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쑥쑥 자라는 게 눈에 보여서 참 재미있었다. 뉴욕 브로드웨이 한국학교는 봄 가을학기에 행사가 정해져 있었다. 학기마다 14 주씩 1 년에 28 주 동안 수업을 했다. 봄학기에는 NAKS-NE Chapter 주최 어린이 예술제 참석, 운동회. 가을학기에는 동화구연대회, Korean Parade 행사가 있다. 학기마다 학부모들이 자녀수업을 참관하도록 공개수업도 가졌다. 그리고 수시로 학부모들이 담임교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매학기 말에는 반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발표했다. 그리고 1 년에 한 번씩 “넓은 길, 열린 글”이라는 책을 발행했다. 제일 잘하는 고학년 학생들은 졸업시험을 보고 졸업을 했다. 단 본교에 2 년 이상 재학해야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나는 만 20 년 동안 교장으로 일하고 2004 년 6 월에 퇴임식을 하고 마쳤다.

6.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

미국의 한국학교 협의회는 1980 년에 재미한국학교 협의회를 발족시키기 위한 첫 모임을 가진 후, 1981 년에 정식 회장단이 구성되고 1985 년에 재미한인 학교 동북 부 지역협의회가 창립총회를 가졌다. 워싱턴지역협의회, 시카고 지역 협의회에 이어 세 번째로 동북부지역협의회가 탄생된 것이다. 나는 매년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연수를 받았다. 1992 년에는 NAKS 의 재무를 맡아 봉사했다.

재미한국학교 협의회는 매년 여름 다른 도시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 하였다. 그 당시에는 한 300 여명의 교사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정기총회, 학술 대회 (교사연수회)를 크게 했다. 나는 1999년에는 동북부 지역 협의회 회장으로서 피선되어 2년 동안 봉사했다. 그 당시에 동북부지역협의회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버니아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면서 1년에 3회 교사연수회를 실시했다. 뉴욕에서 한 번, 뉴저지에서 한 번, 필라델피아에까지 가서 한 번 이렇게 세 번을 실시했다. 십여 명의 교사들이 강사로 활동을 하였는데 필라델피아는 당일 새벽에 떠나서 하루 종일 하기도 하고 하루 전 저녁에 도착하여 하루 밤 자기도 했다. 매번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다. 한 지역에 200-250명까지도 참석 한 일이 있었다. 내가 동북부지역협의회 회장 때에도 예년과 같이 임원들과 함께 교사연수회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어린이예술제, 동화구연대회, 한영. 영한 번역대회, SAT II 한국어모의고사 실시, 교장, 이사장, 지역인사 초청 간담회 등을 실시하면서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다. 이 모든 것은 재미동포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한국학교들은 돈이 많지 않았다.

어느 날 Washington DC에 있는 워싱턴지역 한국학교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한국에서 KBS 국악관현악단이 미국에 왔는데 협의회 기금모금을 위해서 뉴욕에서 관현악단 공연을 하지 않겠느냐는 고 김경열 회장의 전화였다. 우리 임원 들은 논의 끝에 초청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런 큰일을 해보지 못한 우리 교육자들의 무모한 생각이란 걸 알고 당황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초청공연은 링컨센터에서 해야 하는데 하루 임대료만 3만 달러 이상이라는 것이다. 1,000명쯤 수용하는 공연장에 얼마를 받아야 임대료를 제하고 우리 협의회 기금에 도움이 될까 아찔했다. 우리는 부랴부랴 한국 해당 정부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협조를 구해서 겨우 1만 달러를 모금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 일은 교육자가 하는 게 아니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때 모금액은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하여 유용하게 쓰였지만.....

한국 정부 및 한국어 관련 여러 학회에서도 꾸준히 재외동포 교육을 위해 노력했다. 국제교육진흥원, 한글학회 주최 해외 한국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매년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는 협의회 차원에서 신청자를 모집하여 한국에 보냈다. 또한 매년 장기근속교사를 표창하여 격려하였고 교사연수회를 통하여 새로운 교수방법을 배우게 했다.

7. SAT II KOREAN 모의고사

미국의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SAT II KOREAN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을 때 재미 한국학교 동북부 지역 협의회는 그 시험에 대비해서 SAT II KOREAN 모의고사를 실시했다. 모의고사를 위해 시험문제 출제위원을 구성하여 이미 실시하고 있던 SAT II 일본어, SAT II 중국어 시험 예상문제집을 사서 그것을 참고로 하여 한국어 문제를 만들었다. SAT II 일본어는 일본어를 잘 아시는 NJ 한국학교 윤순철 교장 선생님이 번역하였고 SAT II 중국어는 중국어를 전공하신 뉴욕 브로드웨이 한국학교 학부모회 임원이셨던 노시호 어머니(Sabina 노)에게 번역을 의뢰했다. 1995년에 개설된 뉴욕한국어교육원에서는 발 빠르게 4명의 선생님(이선근, 차영실, 최미정과 김근순)이 모여서 “SAT II KOREAN 예상문제집”이라는 책자를 출판(1997년 발행)해서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었다.

재미한인학교 동북부지역협의회에서 첫해에 1,200여명의 학생들이 SAT II KOREAN 모의고사에 참여하였다. 그 즈음에 재미한인학교(NAKS) 총 협의회 총무로 활동하던 방정웅 선생님(텍사스 거주)이 맨해튼에 있는 우리 학교(한국문화연구재단)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SAT II KOREAN 모의고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의고사를 전국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다. 마침 그분은 텍사스주 교육청에서 시험 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기계채점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뉴욕에서 하듯이 시험지 채점을 손으로 한 장 한 장 하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몇 천 명이 응시해도 문제가 안 되었다. 우리는 임원회의를 하여 전국적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000년에는 내가 NAKS 총협의회 부회장으로 봉사할 때 SAT II KOREAN 모의고사 담당 부회장직을 맡아서 일했다. 전국에서 뽑혀온 모의고사 출제위원 5 명과 함께 뉴욕의 Laguardia 공항 근처 호텔에서 일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모의고사 출제위원장으로 이선근 선생님이 봉사할 때였다. 이선근 선생님은 7년 동안 모의고사 출제위원장으로 모의고사 출제를 담당하였다. “SAT II KOREAN” 시험은 지금까지도 매년 4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응시하고 있고 또한 모의고사도 계속 실시되고 있다.

8. 뉴욕대학교 ASIAN STUDIES PROGRAM

나는 1991년 초부터 5년간 뉴욕대학교 ASIAN STUDIES PROGRAM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다. 한 반에 20명씩 두 반을 맡아서 가르쳤는데 90% 정도는 한국학생들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꼭 한국어를 그 학기에 배워야 하는 이유를 대면서 허락해 달라고 사정하는 바람에 한 반에 24-25명을 가르친 적도 몇 번 있다. 잊어지지 않는 이야기 중의 하나를 소개해 본다.

나는 기초반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학기가 거의 끝날 무렵, 내 반에서 공부하는 한 한국인 남자 학생이 찾아왔다. 자기는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하고 유학을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쉽게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하여 한국어 기초반에 등록한 것이라고 실토를 한다. 어찌면 좋을까? 지금은 그 학생 얼굴도 기억이 안 난다.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척하고 입 다물고 앉아 있는데 그 사정을 알 도리가 없지 않은가! 기가 막혔다. 유학생들은 가끔 학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때 내 반에서 공부한 한인 학생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릴 때 이민 온 학생들이 배웠다. 그 당시 수업 받은 학생들이 교수들을 평가해서 책자로 출판을 했는데 내 수업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진심으로 학생들이 잘 배우기를 바라서 열심히 가르쳤다. 4-5 년 후에 한국어 전임강사를 뽑을 때 East Asian Studies Program 의 중국인 책임자였던 교수가 NYU 에서 계속 가르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마음에 안 내켜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그때 계속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9. 뉴욕 한국어 교육원 창설

나는 1975 년 6 월부터 뉴욕에서 살아오면서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려서 이민 왔는데 어릴 때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한국인 2 세가 많은 것을 알고 이선근 선생(남편)과 함께 뉴욕 맨해튼 Korea Town 에 성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원을 세웠다. 그때가 1995 년 3 월이었다.

한국 신문과 라디오 방송으로 뉴욕 한국어 교육원의 설립을 알리고 광고를 통해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한국인 2 세가 80%, 외국인이 20%였다. 4 명의 교사들이 가르쳤다. 선생님들은 모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었다. 학생들은 모두 직장인들이었기 때문에 수업은 자연히 저녁시간으로 정했다. 교육은 주중반은 일주일에 두 번씩 월수반, 화목반으로 정하고 6 시부터 1 시간 반씩, 또는 7 시 40 분부터 1 시간 반씩 수업을 하였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후 2:00-5:00 시로 정했다.



주중반 학생들은 하루 종일 자기 직장에서 근무하고 퇴근하여 다시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한 반에 3-7 명의 소수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였다. 한국어를 회화 중심으로 가르치려고 했기에 한 반에 7 명 이상은 받지 않았다. 학생 수가 적으니 학생들은 알찬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들 하였다.

한국인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가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잘 못하고 글을 잘 모르니 부끄러워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고 한국어가 필요해서 배우는 사람도 꽤 있었다. 그중에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한국인들도 있었다. 자기가 어릴 때 주말 한국학교에 안 가겠다고 해서 부모님이 그냥 놔두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못 배웠는데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냥 허락했느냐는 것이다. 강제로 가르쳤어야 옳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뒤늦게 배우러 온 사람들이다.

30 대 중반의 한국 남자 의사 이야기 하나가 생각난다.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의사들이 몇 십 명 되는데 갑자기 영어를 모르는 한국 노인이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미국 간호사들이 자기에 와서 통역 좀 해 달라고 하더라. 자기가 한국말을 못해서 아주 부끄러웠고 당황한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러 온 경위를 설명한다. 그 학생은 너무 바빠서 5 번도

못 오고 그만 두었다. 또 많은 한국인 젊은이들은 약혼자 또는 배우자가 한국인인데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님과 말이 안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경우도 많았다.

한 한국여자는 미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제는 한국말을 못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국인 시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달려 와서 한국말을 빨리 배워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물으니 자기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미국인 시댁 식구 11 명이 2 개월 뒤 여름방학 때 단체로 한국 관광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통역을 하라고 했다면서 한국어 교육을 서두르는 것이다. 그 여자는 한국어 실력이 기초밖에 안 되는데 한국어를 2 개월 안에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 주일에 3 시간씩 배우는 우리 한국어 교육원의 제도로는 몇 년 배워야 한국관광 여행을 하는 미국인들에게 웬만한 통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전문적인 용어, 어려운 말은 알아듣기도 힘들다. 고사성어 “유비무환”이란 말이 생각난다.

제일 처음에 말한 대로 학생들은 나이, 직업이나 국적도 아주 다양하다. 배우는 이유도 다르다. 많은 학생들은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하면 그만두거나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온다. 뉴욕에 있는 모 방송국의 일본인 여자 중견 간부가 한국어에 흥미를 갖고 3 년 동안 한국어를 배운 후 한국 방문을 하고 나서 한 말이 실상을 보여 준다.

그 여학생은 한국을 골고루 보기 위하여 한국에 갔는데 그분의 아버지는 자기가 일본에서 자랄 때 자기 딸에게 “너는 한국 사람을 보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네가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도 한국에는 가지 말아라!” 하면서 한국인과 한국 땅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켰는데 성인이 되어 뉴욕에 와서 살면서 한국 TV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되고 한국 사람을 만나도 좋더라는 것이다. 겨울의 연가를 자그마치 24 번이나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욕에 있는 일본 사람 가운데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고 했다. 남편과 나도 그 모임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다. 그 모임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분은 80 세가 넘는 일본여성인데 겨울의 연가를 80 회 이상 보았다고 했다. 믿어지지 않는다. 일본인들만 40-50 여명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운 또 한 분, 일본 중년 여자가 있다. 그 분은 번역가인데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잊어지지 않는 이야기 한 토막. 중고등학교 시절 한국 여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방과 후에 같은 무용학교에 다녔단다. 그런데 무용학교에 갈 때 길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하면 같이 이야기도 하고 수업도 같이 듣고 친구처럼 대했다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국 젊은이들의 꽤 많은 사람들이 Kitchen Language 라고 하는 기본적인 말밖에 못 한다. 보통 비슷하게 알아듣지만 간혹 180° 반대로 알아듣는 경우도 있다. 모르는 단어를 들으면 추측으로 알아듣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도 비슷한 발음 또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한국 문장에 영어 단어를 섞어 쓰는 경우가 아주 많으니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한국말을 배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한국어는 1988 년 한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2000 년에 들어서면서 K-POP, TV 드라마 등으로 비한국계 성인들이(젊은이)많이 배우기 시작했다. 어떤 학생들은 TV 드라마를 보다가 못 알아듣는 단어를 적어 와서 묻는 경우가 있다. 사전에도 없는 말도 있다. slang 이나 또는 요즘 만들어 쓰는 합성어들이다. 교사도 처음 들어보는 말도 많다. ‘우리말’이 이렇게 파괴되어도 되나! 정말 큰일이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들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날이 올 것 같다. 아니 벌써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TV 에서도 “맛이 크리미하다.” 든지 “멋진 데이 보내세요.”라고 한다.

영어를 잘 아는 한국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합성어가 많다. 한국 내에도 한국대학에 유학하는 외국 학생들이 많아지고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대학들이 유학생들을

위하여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고 사실 학원도 많은 것으로 안다. 그 영향을 받아 요즘 우리 교육원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일전에는 교육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국 중년 여자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느냐고 하더니 TV 드라마에서 들었는데, “에미”, “에비”가 뭐냐고 묻는다. 때로는 경상도 사투리를 적어 와서 그 뜻을 묻기도 한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화와 역사도 배우고 있다.

10. 입양인 한국학교 개설

뉴욕 한국어교육원에서 배우는 학생들 중에 한국인 입양인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공부를 하지 않고 몇 달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중 한 학생이 한 1년 동안 공부하다가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기에 그 이유를 들어보니 자기 뿌리를 찾기 위해서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돈이 다 떨어져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재단 이사회에 요청을 해 이사회에서 이를 수락해 주어 2005년 1월에 입양인한국학교(Korean Heritage School for Adoptees)라는 이름으로 한국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입양인 한국학교는 한국어교육원 시설을 이용하기로 하고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양된 어린이반 둘, 외국인 부모반 하나를 만들어 가르치고 이미 자라 성인이 된 성인반 하나를 만들어 일요일에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입양인 어린이들만 한국어와 한국문화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그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도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 한국문화, 역사와 풍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부모반도 만들게 되었다. 입양어린이들은 자기들 부모가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결정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였다. 우리의 결정은 정말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부부는 완전히 무료 봉사하였고 다른 교사들에게는 많지 않은 사례금을 지급하면서 꾸려 나갔다.

등록금은 일반인 학생들의 등록금의 25%로 책정했다. 무료로 가르치려고 했지만 무료로 가르치면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랐다. 몇 안 되는 가족이었지만 아이들은 한국말과 노래를 배우고 그 부모들은 기초 한국어를 비롯하여 한국의 문화, 역사, 예절, 풍습 등을 영어로 배웠다.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을 잘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고생을 각오하고 배우겠다는 결심을 한 부모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입양인 한국학교에서 1년에 한두 번씩 한국음식 만들어 먹는 실습시간도 가졌다. 학교 근처에 있는 한국식당, 큰집, 금강산, 강서회관 사장님들이 도와주셔서 김치 만들기를 비롯하여 만두 만들기, 송편 만들기 등을 배우기도 하였다. 입양인 부모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자녀들과 같이 실습도 하면서 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미국인 부모들은 자기들이 입양하여 키우는 한국인 자녀들이 자기 뿌리를 알고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았고 또 설날에는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한 후 세뱃돈을 주기도 하고 율놀이를

하면서 한국의 풍습을 익히고 있다. 여름방학 때는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을 여행하면서 자기 자녀들이 태어난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경험을 하도록 한다.

11. 결론

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4.19 와 5.16 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한창 어려웠을 때 대학교에 입학해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에서 공부하면서 교내에 있는 시청각교육센터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고 있을 때 연대 한국어학당의 학감이셨던 박창해 교수가 나보고 한국어를 가르쳐 볼 생각이 있으면 도와 주겠다고 하셔서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뜻이 있는 일이며 재미있었다.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을 때 한국어 학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동료 강사 이선근 선생과 책 쓰는 일 때문에 만나게 되면서 서로 사귀게 되었고 1년 후에 이선근 선생이 터키 정부 장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학을 공부하러 미국으로 가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나도 터키 정부 장학생으로 터키에 가 도서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1975년에 귀국하는 길에 동생 결혼식에 참석할 겸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 미국에 들른 것이 나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

뉴욕에 와서 1978년부터 부르클린 한인교회 한국어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여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부설 뉴욕브로드웨이 한국학교, New York 대학교 Asian Studies Program(한국어), 한국문화연구재단 뉴욕한국어교육원과 입양인한국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수십 년을 지내 오고 있다. 요즘도 한국인 2세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한국 문화와 역사를 설명해 주기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재미있고 뜻있게 보내고 있다. 그동안 한국어 교사로서, 교장으로서 일하는 동안, 전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현대 언어교수법을 배워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기에 미국 전역에 초청을 받아 한국어 회화교수법을 강의하였고

새로운 한국어 교과서를 동료 강사들과 같이 만들어 출판하였으며 재미한인학교 동북부지역협의회 회장, 재미한국학교 총협의회 부회장으로 한국학교 교육 발전에도 작으나마 도움을 주는 일을 지금까지 삼사십 년 동안 하여 왔다. 이런 일들로 인해 내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고생은 했지만 우리 한인 2 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보람이 있는 일이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언젠가는 한국어가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즐거이 배우는 국제 언어가 될 것이 틀림없기에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글쓴이 김근순(Geun Soon Kim Lee)은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학사 학위를 받았고 1975 년에 Ankara University(Turkey)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문화연구재단 뉴욕한국어 교육원에서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